

ICN(국제간호협의회) CNR(대표자회의)

국제간호협의회 새 임원진 선출

아네트 케네디 회장 ... 신성례 제3부회장 당선



회장 아네트 케네디



제3부회장 신성례

국제간호협의회(ICN)를 이끌어 나갈 새 회장으로 아네트 케네디(Annette Kennedy) 전 ICN 제3부회장이 당선됐다. 신임 제3부회장으로 신성례 대한간호협회 국제특별위원장(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 조직위 집행부위원장)이 선출됐다. ICN은 대표자회의(CNR) 기간 중인 5월 26일 임원 선거를 통해 제28대 회장과 세계 7지역을 대표하는 이사 13명을 선출했다. 임기는 4년이다. 대표자회의 이후 6월 1일 첫 이사회를 열어 이사 중에서 부회장 3명을 뽑았다. 제1부회장으로 파멜라 치프리아노 미국간호사협회장(Pamela Cipriano, 5지역), 제2부회장으로 텀베카

과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간호협회 사무총장(The-mbeka Gwagwa, 1지역), 제3부회장으로 신성례 대한간호협회 국제특별위원장(7지역)이 뽑혔다. 부회장 이외 이사 10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2지역(중동) = 파티마 알 리파이(Fatima Al Rifai, 아랍에미리트간호조산협회 이사) 요아니스 레온티오스(Ioannis Leontiou, 사이프러스간호조산사협회장) ◇3지역(북유럽 및 동구) = 카렌 비요르(Karen Bjoro, 노르웨이간호사협회 제2부회장) 브리지타 스킨라-사빅(Brigita Skela-Savic, 슬로베니아 안젤라 보스킨 건강대학장)

◇4지역(중남유럽) = 로스비타 코흐(Roswitha Koch, 스위스공중보건학회 이사) 마리아 에울라리아 후베(Maria Eulalia Juvé, 스페인 바르셀로나대 간호대학 교수) ◇5지역(북미 및 카리브) = 리사 리틀(Lisa Little, 전 캐나다간호협회 정책이사) ◇6지역(남아메리카) = 에리카 까바에로(Erika Caballero, 칠레간호사협회 국제담당부회장) ◇7지역(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 리안-후아 후앙(Lian-Hua Huang, 전 타이완간호사협회장) 우잉(Wu Ying, 중국간호협회 부사무총장). 신성례 ICN 제3부회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세계 간호사들을 대표하는 ICN 임원으로 선출돼 영광스럽고 또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임원 후보로 추천하고 지원해주신 대한간호협회와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간호협회는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앞으로 ICN 이사국으로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게 됐다"며 "한국 간호사로서 자긍심을 갖고 세계 간호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례 ICN 제3부회장은 현재 삼육대 간호학과 교수로 몸담고 있으며, 대한간호협회 국제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이사를 지냈으며,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 조직위원회 집행부위원장을 맡아 활약했다. 한편 임원 후보들은 ICN이 승인한 절차에 따라 선거홍보활동을 펼쳤다. 사진 홍보활동으로 ICN 홈페이지에 후보의 홍보영상을 올려 각국의 간호협회 대표들에게 알렸다. 대표자회의(CNR) 기간 중에는 회의장 복도에 마련된 후보홍보테이블에서 선거운동을 펼쳤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케네디 회장 좌우명 '함께하자(Together)' 제시

"간호사의 힘 모아 함께 나가면 변화 이룰 수 있어"

ICN 신임 회장 아네트 케네디는 이번 선거에서 단독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아일랜드 출생으로 유럽간호사연맹(EFN) 회장, ICN 제3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병원 현장에서 18년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으며, 아일랜드간호사조산사협회 국장으로 19년 일했다. ICN 변혁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유럽간호사연맹 회장을 할 때 대정부 정책활동을 활발히 펼친 경험을 갖고 있다.

아네트 케네디 신임 회장은 5월 31일 열린 폐회식에서 주디스 새미안 현 회장으로부터 'ICN 회장 목걸이'를 건네받았다. 목걸이에는 역대 회장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케네디 회장은 임기 동안의 좌우명(watchword)으로 '함께하자(Together)'를 제시했다. ICN 회장은 자신의 신념과 리더십, 공약을 함축한 좌우명을 영어 한 단어로 제시하게 돼 있다.

케네디 회장은 먼저 "그동안 애쓰신 주디스 새미안 회장과 임원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ICN 회장이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새 임원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함께하면 어떤 것이든 해낼 수 있고,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손잡고 일한다면 보다 나은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간호사들이 정책테이블에 앉아서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건강분야에 예산을 투자하고,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설득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알아보는 것"이라며 "우리 간호사들은 정책테이블에서 목소리를 내고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간호사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세계 간호사들의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면서 "함께 힘을 모은다면 우리는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케네디 회장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시나리오는 이미 마련돼 있으니, 다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면 된다"며 "모든 사람들이 보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손잡고 일하자"고 말했다.

그는 헨리 포드의 명언인 '함께 모이는 것이 시작이며, 이를 유지하면 진보하고, 함께 일한다면 성공한다'를 인용하면서 "국제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협력하고 함께 힘을 합쳐 일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주혜진 기자 hjoo@



사진 왼쪽 | 학술대회 폐회식에서 ICN 신임 임원진이 소개됐다. 새로 선출된 임원들이 무대 위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폐회식을 함께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 | ICN 신임 임원과 대한간호협회 대표들. 오른쪽 둘째부터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 아네트 케네디 ICN 회장, 신성례 ICN 제3부회장.

ICN 어떤 기구인가



1899년 창립 ... 한국 1949년 회원 가입 세계 간호사 옹호 - 간호전문직 발전 주력

국제간호협의회(ICN·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는 전 세계 간호사들을 대표하는 비정부기구로 1899년 창립됐다. 대한간호협회는 1949년 ICN 회원으로 정식 가입했다. ICN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홈페이지 www.icn.ch ICN의 결핵기구인 대표자회의(CNR·Council of National Nursing Association Representatives)가 2년마다 개최되며, 각국 간호협회 대표들이 참석한다. 4년마다 임원진을 선출한다. 간호사들의 학술축제로 불리는 Congress와 Conference가 2년마다 교대로 열린다. 우리나라는 1989년 대표자회의 및 학술대회(Congress), 2015년 대표자회의 및 학술대회(Conference)를 개최했다. ICN의 미션은 세계 간호사들을 대표하고 국제적으로 간호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간호전문직의 발전을 도모하고 보건의료정책에 영향을 발휘하는 것이다. ICN은 4가지 전략적 목적 및 5가지 핵심가치를 추구한다.

전략적 목적은 세계 간호사들의 공로와 이미지를 옹호하고, 모든 간호사들을 지지하며, 간호전문직을 발전시키고, 올바른 건강·사회·경제·교육정책이 추진되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핵심가치는 비전적 리더십(Visionary Leadership), 혁신(Innovativeness), 연대와 결속(Solidarity), 책임성(Accountability), 사회정의(Social Justice) 등이다. 주요 사업 및 활동은 전문직 간호실무, 간호전문직 자율규제, 간호사의 사회경제적인 복지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펼치고 있다. ICN 로고는 사람과 등불을 형상화한 것으로, 역동성과 유연성을 표현하고 있다. 사람은 간호사와 간호대상자를 의미하며, 등불은 세계적으로 간호사와 간호를 상징하는 이미지이다. 밑받침, 등불, 불꽃, 지구본으로 구성됐다. 이는 통합, 힘(영향력), 전체성, 균형을 상징한다. 불루는 간호와 건강을 상징하며, 옐로우는 간호전문직의 따뜻함을 보여주는 컬러다.

나이팅게일국제재단 국제간호대상 시상

국제간호대상(International Achievement Award) 2017년 수상자로 여성폭력 예방과 대응에 앞장서온 낸시 글래스(Nancy Glass·미국) 간호사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5월 30일 열린 국제간호협의회(ICN) 나이팅게일국제재단(FNIF) 오찬에서 진행됐다. 국제간호대상은 간호 실무·교육·연구·행정 분야에서 헌신하며 탁월한 업적을 남긴 간호사에게 주는 상이다. 2년마다 시상한다. 재단에서는 아프리카 소녀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낸시 글래스 간호사는 여성건강 연구자이며, 공중보건 및 국제보건 전문가이다.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 배우자에 의한 폭력, 젠더 기반 폭력에 대응하고 예방하는 데 주력해왔다. 배우자에 의한 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예방을 위한 근거기반 전략 수행을 이끌었다. 젠더(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저소득국가의 여성건강 및 사회경제적 여건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한편 2017년 국제간호대상은 당시 김수지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가 지역사회중심 정신보건사업 모델을 개발 보급한 공로로 수상한 바 있다. 김수지 교수는 지난해 소견했으며, 시신을 기증해 귀감이 됐다. 정규숙 기자 kschung@

임기 마친 새미안 회장

간호의 영향력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지난 4년간 ICN을 이끌어온 주디스 새미안(Judith Shamian) 회장이 임기를 마쳤다. 새미안 회장은 2013년 5월 호주에서 열린 ICN 대표자회의에서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임기동안의 좌우명으로 '영향력(Impact)'을 제시했다. 새미안 회장은 "지난 4년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영향력'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서 "이는 명사(영향력)이면서 동사(영향을 미치다)이고, 수단(영향력)이면서 목표이며, 행동이면서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ICN과 간호의 영향력을 만들고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간호사가 보건의료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문직, 보건의료 시스템, 정부, 인류를 위해 얼마나 긍정적인 결과를 성취했는지 보여주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새미안 회장은 "우리는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전략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정책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간호사들은 모든 단계에서 보건의료 정책개발과 의사결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정책테이



블에 앉아야 하며, 간호라는 이름 아래 단합하고 연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미안 회장은 임기 중에 서울에서 ICN 대표자회의 및 학술대회(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를 진행했다. 당시 행사를 마친 후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는 대단히 성공적이며 특별했다"면서 "서울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많은 자금을 받았고, 모두에게 대단한 경험과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간호는 눈부시게 발전해 왔으며, 한국이 이룬 간호성공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